

白頭山과天池

학 회 장 홍 시 환

1. 白頭山과天池

長白山이라 부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祖宗山인 白頭山, 하기야 長白山脈의 주봉을 이루고 있다고 하여 中國에서는 옛날부터 長白山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우리가 올라간 곳은 白頭山이 아니라 長白山이라고 불러야 맞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옛부터 白頭山이라 불러왔고 이 산이야말로 우리나라 韓半島의 영봉으로 알고 있으니 白頭山이란 이름으로 불러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겠다.

높이 2,744m 아니 높이 2,749.2m로 까지 발표되고 있는 이 白頭山은 日本列島의 火山島 보다는 낮으나 中國의 동북지방, 그옛날 滿洲로 불리워 왔던 넓은 허허벌판인 땅에서 뻗고있는 韓半島에서 가장 높은 山임에는 틀림없다.

더구나 이 白頭山은 우리나라와 滿洲땅을 경계짓고 있는 鴨綠江과 豆滿江의 두 물줄기의 발원지가 되고 있기도 하고, 산꼭대기에는 2개의 호수 즉, 天池와 小天池의 火口湖가 있어 이름났다.

그중 天池는 白頭山 山頂 부근의 16개의 봉우리로 둘러싸여 있는데 총둘레는 12km, 면적은 9.8km²로 가장 깊은 곳이 383m, 평균 깊이는 204m로 발표되고 있다. 그리고 天池의 가장 넓은 남북길이는 4.85km, 동서길이는 3.35km라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 白頭山の 火口湖인 天池의 웅대함을 짐작할 만도 하다.

이 天池의 물깊이는 현재까지 세계에서 보고되고 있는 山上湖水로서는 가

장 높은 곳에 있는 火口湖라고 발표되고 있는데 이 天池의 湖水 水面의 해발높이는 2,155m로 기록되고 있다.

이밖에도 白頭山에는 小天池라 부르는 작은 火口湖가 있다. 白頭山 天池로 올라가는 산지 사면에 있는데 수면의 면적은 1,000m², 물깊이 약 10m의 작은 火口湖이다.

2. 白頭山の 地質과 地形

이곳 白頭山の 地質을 개관하면 알카리 조면암의 현무암으로 되어 있다. 산지 사면의 경사가 매우 느려 8-10도의 경사를 이루고 있는 아스피테 화산체로 NE-SE 장축은 약 27km, 단축 길이는 약 15km로 화산추 지형을 이룬다.

지표면은 크게 지질시대에 따라 3단으로 구별되고 있으며 곳곳에 흐르는 무늬 모양의 지형을 이루고 있고, 또한 어떤 곳에는 기생화산도 발달되고 있음을 보게된다.

이른바 天坪이라고 부르는 1,500m 내외의 넓은 용암대지위에 알카리 조면암으로 되는 편평한 도움 모양의 산체가 전개되는데 이 부근 일대에는 매우 두터운 지층으로 浮石 지층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天池를 찾는 동반객 눈에 띄이고 한다.

한편 白頭山の 생성과정을 개관하면 현재는 休火山인 이 白頭山은 그 모체가 되는 현무암대지가 이미 古生代 제3기에 용기가 이루어 졌다고 하며 그 이후 제3기 점진세대에서 제4기 洪續世인 거금 약 100만년전 때까지에 걸쳐 여러차례의 분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白頭山 山頂의 火口湖인 天池의 오늘의 모습은 1702년 조선조 숙종 28년 화산이 분출할 당시 이루어진 것으로 朝鮮實錄地理志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된다. 이기록에서는 제1차 폭발이 1595년 8월(선조30년), 제2차는 1668년 4월(현종 9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1702년에 분출하였다고 기록되

어 있다.

참으로 白頭山의 모습은 이와같은 생성과정을 거쳐 지금과 같은 우아하고도 성스러운 산세를 이룩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 天池를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 수는 中國에서는 17개, 北韓에서는 16개로 발표되고 있는데 中國측 발표를 근거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봉우리 17개중 中國측에 10개 봉, 北韓측에 7개 봉이 있다고 하며, 최고봉인 白頭峯은 2749.6m로 北韓측에 있고, 中國측에서는 白雲峯이라고 부르는 높이 2679m가 가장 높은 봉우리로 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해발 1,900m 지점에는 火山洞窟인 용암 터널이 지반봉 북측에 있다. 洞窟 천정의 높이 1-3.5m, 남북의 길이 26m, 폭은 8-11m이며 洞窟속의 총면적은 약 300m²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이 洞窟이 국제적인 합동조사로 확인된다면 현재 상태로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火山洞窟에 해당될 것임에 틀림없으나 1991년, 1992년에 조사를 희망하였으나 실시되지 못한 실정이다.

3. 白頭山 등반길

한편 白頭山 정상에서의 등산길은 대체로 세갈래의 코오스가 옛부터 알려져 있다.

이번이나 지난번 세차례의 등반이 모두 圖土가 분단되고 있는 상태이어서 부득이 中國측의 등반길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음은 매우 유감된 일이라 하겠다.

즉 北韓 지역에서의 등반로는 두갈래의 길이 있는데 이는 일제 식민지시대에 많이 이용되었던 코오스이다. 그 하나는 鴨綠江 물줄기를 따라 白頭山 天池로 가는 길이고, 함경남도의 압록강변에 있는 惠山에서 출발하는 코오스이다. 그리고 또하나의 北韓땅 코오스는 함경북도 茂山에서 豆滿江을 따라 올라가는 코오스이다. 이와같은 두 코오스는 매우 가깝게 느껴지는 등산 코오스인데도 불구하고 멀리 中國땅을 거쳐 돌아서 올라가야만 하는 우리민족의 서러움이 한스럽기만 하다.

세번째의 등산길은 中國땅 松花江 연안을 거슬러 올라가는 등반길이다. 흔히 연변지방, 길림땅을 거치는 등산길이다.

이 코오스는 다시 두가닥으로 나뉜다. 주로 이용되는 등산길은 연길에서 출발하여 용정을 거쳐 화룡, 청산, 삼도, 송강을 지나 이도백하로 白頭山에 오르는 길이 많이 다니고 있는 코오스이다. 또 한가닥의 코오스는 지금은 잘 이용되지 않고 있으나 연길에서 안도를 거쳐 만실, 송강으로 들어가 올라가는 코오스이다.

4. 맺는말

白頭山, 天池 그리고 閭島, 延邊이라는 地名은 우리들에게는 잊을래야 잊을수 없는 地名들이다.

이제 세번을 올라가도 또 올라가고 싶은 이 白頭山 天池 모습의 이모저모를 되새기면서 몇마디 적어 보았다.

끝으로 자료의 일부를 제공해 주신 延邊大學 劉忠杰 학부장님께 감사드리는 바이다.